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창간호

백리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종회
- 발행인 : 회 장 이 종 우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12년 4월 15일

주소 :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 | http://sachonlee.net |

창간사



대중회장 이종우

우리 사천(동성)씨의 종회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뿌리"호의 앞날에 늘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자축합니다. 대중회를 비롯한 중소문중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각 화수회의 활동상황 그리고 종인들의 사회적 활동상과 변동사항 등 모든 종인들의 소식들도 실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님들의 훌륭한 가르침과 미담들을 전해 읽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해 줌으로서 송조상문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덕업 성취에 기본 교훈의 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나 창작한 작품들은 장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셔서 알찬 정보가 만들어 지도록 다함께 가꾸어 갑시다.

본보 창간에 온갖 정성을 다한 부회장 이영근 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고 "뿌리"호의 탄생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근묘화실(根苗花實)의 인연

참의공파 25세 행정학박사 이준



봄이 되니 겨우내 숨어 있던 작은 움들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천리향은 한껏 피어올라 그리운 향내를 온 천지에 퍼질러대고 있다. 천지의 약동함을 맨 먼저 작은 움과 꽃들에서 느낄 수 있음이 묘한 감격이다.

하지만 이 알싸한 향내도 어찌 뿌리 없이 천지에 퍼질 수 있으며, 이 흐드러지게 아름다운 꽃망울들도 어찌 즐기 없이 터질 수 있으랴. 꽃피고 나면 그 자리에 또한 꼭 같은 꽃을 피우기 위해 씨앗과 열매를 맺을 터 생명은 찬란하게 이어진다.

뿌리나 줄기도, 꽃과 향내도, 씨앗과 열매도 그 모습과 이름만 다를 뿐 본시는 하나의 몸통이어라. 다만 때의 인연을 맞아 그 모습을 달리 드러낼 따름이다.

우리 일족(一族)의 근묘화실(根苗花實)도 저마다 때를 만나 튼실하고 향기롭게 피어올라 영원하였으면 한다.

〈편집자 주 : 근묘화실(根苗花實) 卍 조상은 뿌리요, 자손은 그 열매라는 뜻〉

조원사 뜰에 서서

백인재공파 25세 이형환 (하동진교 거주)



공경과 의로움은
인간의 근본이요 관건이다
뿌리를 잊고 나만 챙긴다면
육신은 어디서 왔을까
공경으로 마음속을 바르게 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멀리 있어도 서로 호응을 하니 핏줄은 숨길 수 없는 순리

조상숭모의 일념으로
수천의 세월이 흘러가도
우뚝한 기상과 수 천리를 날아오르는
봉황의 의지로 대를 이었고
광활한 터에 뿌리 내림은
깊고 후한 선조의 덕이었으니
대종(大宗)의 중흥은 후손들의 몫

나를 모르고 왜 모르고 살아 왔는지조차 몰랐다면
고향에 살아도 타향보다 못한 삶이 아니었던가
이제는 마주 닿지 않는 길은 견지를 말자

바쁘게 흐르는 세월이 앞을 가려
못다한 울음이 있다면
밤새도록 하늘가에서 우는 외기러기 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조원사의 뜰에서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피워보자

우리가 머문 자리에 오가는 나그네가
눈을 닦고 머물게 하는 밑알이 될 것을
무릎 꿇고 참 마음속에 향을 피우자
뿌리 찾음이 나의 기쁨이니
대종의 큰 산맥을 어루만지며 이어가자

〈편집자 주 :
조원사(肇源祠) 卍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에 있는
사천(동성)이씨의 시조
외 6위의 선조 위패를
모신 근원이 시작된다는
뜻의 사당〉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2012년 제1차 임원회의

- 일시 : 2012. 3. 1. 11:00
- 장소 : 조원사 일원제



시골조사보고서(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04.21 ~ 2011.10. : 이영섭, 이은식, 이종찬, 조근도 도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으나 정부 지원이 어려운 사정에 있음.

- 4) 대중회 임원 임명보고 및 위촉장 수여
▷관련근거 : 대중회 규약 제8조(임원의 선출 및 방법)에 의거 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였음
▷대상자수 (임기 : 2011. 4. 17 ~ 2013. 4.)

파조	인원		
	이사	부회장	계
참지공	9	3	6
진사공	5	1	4
참의공	6	1	5
첨정공	5	2	3
성균진사	6	1	5
우소제	7	2	5
백인제	9	2	7
선무랑	4	1	3
생원공	8	2	6
합계	59	15	44

- 5) 대중회 임원연수 결과보고
▷일시 : 2011. 11. 5 ~ 11. 6(1박2일)
▷장소 : 경북 하회마을, 농암종택, 퇴계종택, 도산서원 모태한서암, 도산서원, 국학진흥원 등
▷참석인원 : 38명



6) 2012년도 제3회 구암제 개최계획

- ▷일시 : 2012. 4. 6 ~ 4. 9. 사천시 제17회 와룡문화제와 함께 구암제를 개최하되 4.8 ~ 4.9(2일) 개최하기로 하였음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 구계서원, 사천고
▷주최 : 사천문화재단
▷주관 : 구암제 집행위원회
▷후원 : 경남도, 사천시, 마산문화방송국, 사천문화원, 구계서원,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 ▷행사일정
- 4월8일 17:00~18:00 : 2012년 제3회 구암제 서제봉행(구계서원)
- 4월9일 10:00~ : 2012년 제3회 구암제 개제식(선진공원)
- 4월9일 11:00~과거실시, 13:00~축하공연, 15:00~유가행렬(사천), 16:30~ 합격자 발표, 17:30~구산사 참배 및 흥패 증정
- 7) 구암 이정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계획
- 일시, 장소, 행사내용 : 미정(구계서원 추진위원회 검토 중)

주요안건 토의

- 1) 제3회 구암제 개최 예산지원
▷일시 : 2012. 4. 6 ~ 4. 9. 사천시 제17회 와룡문화제와 함께 구암제를 개최하되 4.8 ~ 4.9(2일) 개최하기로 하였음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 구계서원, 사천고
▷주최 : 사천문화재단
▷주관 : 구암제 집행위원회
▷후원 : 경남도, 사천시, 마산문화방송국, 사천문화원, 구계서원,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예산지원
- 시화전시 : 2,000,000원, 구암제 업무추진비 : 1,000,000원
- 2) 대중회지 발행의 건
- 일시 : 2012. 4. 15. 대중회 제8차
- 발행 :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 예산지원 : 1,000,000원
- 3) 효행 선행 표창의 건 - 앞으로 시행하기로 함

주요업무 현황보고

- 1) 2011년도 춘향제 봉행 현황
▷참석인원 : 이봉록 대중회장의 90명
▷주관 : 성균진사 대곡문중(이종점)
▷제수대 : 1,500,000 + 200,000(수고비) = 1,700,000원
▷향촉대입금 : 4,450,000원
- 2) 2011년도 제2회 구암제(시화전시) 현황
▷일시 : 2011. 4. 8 ~ 4. 11(사천시 제16회 와룡문화제와 함께 4일간 시화전시를 함)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 구계서원, 사천고
▷주관 : 추진위원회(대회장:사천시장, 추진위원장:문화원장)
▷후원 : 경남도, 사천시, 마산문화방송국, 사천문화원, 구계서원,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후원금 : 3,000,000원 구암제 추진위원회 지급
▷시화전시 : 총 5,100,000원의 비용으로 시화 전시를 하였음.



- 3) 대관대와 대관대서재 복원 사업 현황
▷2008.11.05 ~ 12.24 : 구계서원 대관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경상대학교 박물관)
▷2010.01.01 : 시골조사 용역비 1억2천5백만원 예산확보(사천시)
▷2010.11.22 ~ 2011.02.15 : 구계서원 대관대 및 대관재

우리들의 유산인 “조원사”

“우리 종인 모두가 천여년의 숙원이었던 귀중한 유산은
우리들의 힘과 뜻을 모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계기 마련”

대중회 고문(성균진사공파 25세) 이 영 규



태양은 동(東)에서 서(西)로 돌고 돌아 세월은 흘러 흘러 어느 때 천여년의 역사 속에 이어온 한 혈육으로 사천(동성)인이 있다. 우리의 인간사회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일 것이다. 이를 되풀이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성씨는 천여년의 역사 속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충효의 풍요롭고 운순한 선조님들의 빛나는 문화유산과 전통을 이어온 후손들이다. 우리의 시조사우 건립과 보존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존재로서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들의 구심점이 이제야 새싹을 트게 하는 시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에 흩어져 살던 우리 전 일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순간이며, 단합된 힘으로써 지난 1973년 10월 1일 제정된 종친회 규약을 1991년 4월 25일 1차로 규약을 일부 개정 결의함으로써 종인의 이 거대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 시조사우 건립에 관한 사업추진과정

우리 전 종인은 시조를 사당에 모시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아 종친회(대중회로 1996년 4월 20일 개정) 규약 제5조1항 시조사우건립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18일 “이재을” 종친회장이 주축이 되어 사천고등학교에서 종친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조사우 건립 및 사적지 보존과 대동보 편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년 1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시조사우 봉건을 하도록 결론짓고 장소를 사천읍 구암리 산34번지를 후보지로 지정 답사 후 관련 법규를 확인한 결과 현행 산림법상으로는 부적지라는 판정이 되었다. 1991년 5월 25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진양군 대곡면 송곡리로 장소를 정하여 추진하였다. 1992년 8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시조사우 건립을 위하여서는 먼저 재정보확보가 최우선임을 결론짓고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본 회의시 종친회 이재을 회장께서 제일 먼저 건립비 명목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기금으로 헌납하였다. 전 종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회장단과 추진위원측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소 선정을 재거론한 결과 우리 본관이 사천이라 하여 시조사우 건립은 반드시 사천군 관내에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장소선정을 총회에 회부하기로 의결되었다. 1993년 4월 17일 종친회 총

회에서 장소는 사천·진주지구 화수회에서 지리적 조건이 좋고 전 종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장소를 선정한다는 조건으로 사천군 관내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4월 18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여 현지 답사한 후 법적요건을 확인하였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 마침내 우리 종인의 문중인 참의공파 선산에 적지가 있어 확인한 결과 부지가 적합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여 참의공 문중대표와 협의한 결과 동의하므로 이를 종친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993년 7월 31일 사천고등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지를 답사한 후 시조사우 건립부지로 확정하였다.

일차적으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참의공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특별조치법에 의거하기로 하여 1993년 9월 16일자 관계서류를 사천군에 접수하여 동년 9월 28일자 등기 완료하였다. 한편 등기완료 전인 1993년 8월 6일부터 동년 10월 3일까지 택지조성을 하기 위하여 측량과 설계를 하여 동년 10월 4일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사천군에 신청하여 동년 10월 8일자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착공을 위하여 동년 10월 9일자 사천고등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모든 착공관계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착공에 대한 의결을 한 결과 동년 10월 31일자 기공식을 거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여기서 사천고등학교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종친회가 모일 장소가 없어 이 학교의 이사장이신 고 이만춘씨가 우리 일족이므로 장소 제공이 되었다)



2. 시조사우 건립 공사 시행 준비

위치 및 기술검토는 1993년 7월 3일 현지 건립가능 여부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건물 방향을 위하여 자리 잘 보는 사람을 현지 답사시킨 결과 정남향 방향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고 하였다.

공사 기공식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사족으로 조상숭배와 종인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갈팡질팡 했던 지난날을 더듬어 보면서 대망의 장소를 마련하여 영광스러운 기공식을 갖게 됨은 정말로 기쁜 일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93년 10월 31일 대망의 기공식은 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산42번지 현지에서 거행하였다. 이때 종인 50여명으로부터 기금 9천여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건물 규모의 결정

시조사우 봉건을 위하여 실무위원인 필자는 형태,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건립유경험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20일부터 1994년 4월 7일까지 좋은 사당, 기능보유자, 건물의 크기, 높이, 벽체마감, 지붕의 형태와 모양, 기와의 종류, 도색의 색상, 문의 모양, 담장 종류 및 높이, 통로, 계단의 석재 등을 전국을 돌며 현지 견학하고 충분한 재료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문화재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시조 위패 봉안

시공은 조원사 제당 건물부터 완료하여 전체 건물 준공 전인 1995년 4월 16일 시조의 6위의 선조 위패를 종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사에서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5. 건물공사의 시공 및 준공일

건물을 짓기 위하여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결과 1994년 10월 4일자 주춧돌 시공을 시작으로 경내 모든 건물공사가 1996년 11월 8일까지 2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1996년 11월 18일 대중회(종친회를 대중회로 명칭변경) 회장단과 관계 책임자가 준공검사(문중검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 1월 31일자 사천시(군에서 시로 승격) 주택계에 준공계 제출, 동년 2월 12일자 건축물 사용승인, 동년 7월 24일자 시조사우 “조원사” 전체(건물 및 토지)를 대중회 명의로 이전 등기 완료, 1999년 4월 18일자로 조원사 준공완료로 하였다.

6. 공사 내용

- ▷ 위치 :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
- ▷ 공사기간 : 1993.10.1 ~ 1999.4.18
- ▷ 총공사비 : 6억2천4백만원
 - 종인의 성금 : 4억원(참여인원: 548명)
 - 족보 지원금 : 2억2천4백만원
- ▷ 대지면적 : 980평 (참의공 문중 제공)
- ▷ 건물면적 : 7동 2,663㎡ (80평37첩)
- ▷ 참여인원명단 : 사천(동성)이씨 시조봉건연혁 참조



7. 종훈

- 崇祖尙門(송조상문) : 조상을 숭상하고 문중을 존중한다.
- 忠孝傳世(충효전세) : 충과 효를 대대로 이어가게 한다.
- 宗誼敦睦(종의돈목) : 친족 간의 정의를 두텁게 한다.

8. 조원사 경내 명칭

- 肇源祠(조원사) : 근원이 시작된 사당이라는 뜻
- 一源齋(일원제) : 근원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뜻
- 景德門(경덕문) : 선조의 덕을 추모하는 문이라는 뜻
- 追遠門(추원문) : 먼 조상님들을 추모하는 문이라는 뜻
- 如禮齋(여례제) : 예를 숭상하는 재실(참의공 재실)

9. 맺는 말

천여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이루지 못했던 귀중하고 고귀한 유산을 우리들의 힘과 뜻을 모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일족 문중에서도 훌륭한 인재 배출과 광명이 비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이제는 종사일을 위하여 모일 수 있는 이 조원사에서 하루만이라도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전 종인이 모여 정도 나누고 서로 화합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다 같이 만 가지 일을 다 제치고 동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종인의 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 회의사진
1993.7.31 시조사우건립비 확보방안



▲ 시삽광경
1993.10.31 대망의 기공식 시삽



▲ 제향대열광경
1995.4.15
제1회 시조 외
7위 제향 제관 배열

백리

선무랑공파 24세 이영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또 그 위의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았던 제각에서 종친들을 만나고
같은 씨족임을 반가와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한 분 두 분 가시려 하니
여기 이 공간에 자리를 만들어
옛 어른의 살아왔던 흔적을 더듬으며...



단군의 그림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나름대로
보이고자 합니다.
함께 모우고 정리바랍니다.

● 사천(동성)이씨의 씨족(氏族)의 연원(淵源)과 성관(姓貫)

우리 씨족은 고려시대에 송악군수를 지내신 휘 식(軾) 할아버지를 시조로 받들고 선향인 사천(동성)으로 하는 사족(士族)으로 선세에는 어느 대에나 인물이 적지 않아서 반열이 높아 향당의 칭송을 받아온 별족입니다.

우리 조상에는 백세에 스승이 될 만한 학문이 있었고, 인륜과 도덕에 앞서는 효가 있어 이를 가풍으로 삼고 성관의 긍지와 자존을 지켜온 종족입니다.

우리의 성관은 사천과 동성을 동원동본으로 장계구파로 우리나라 전역에 뻗쳐 일익번창하고 있습니다.

● 씨족 상계의 세거지

시조공으로부터 5세조까지의 세거지는 명확치 않으나 선향이 사천이라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6세조이신 교도공 할아버지 형제분의 행장과 사적을 보면 교도공 할아버지는 진주 서면 동곡리(현 하동군 옥종면 동곡리)에서, 아우이신 생원공 할아버지는 계산(합천)에서 살으셨음을 알 수 있고, 후에 교도공 할아버지의 아들 두 분 중 형이신 구주공 할아버지(7세조)는 차의촌(현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의 면계일대)으로 아우이신 이륜공 할아버지(7세조)는 비라곡(현 진주시 장재동 일대)으로 이거하시면서 구주공 할아버지는 장계4파(참지공파, 진사공파, 참의공파, 첨정공파)를 두시었고, 이륜공 할아버지는 계계4파(우소재파, 백인재파, 성균진사공파, 선무랑공파)를 두시므로서 각기 진북과 진남에서 장계8파를 두시었습니다.

그 후 장파 제일 큰 집은 감암촌(현 진주시 대곡면 용암리 일대)에서 와옹리 송곡, 함안 칠원, 거창 광성, 전남 담양으로, 진사공 할아버지(11세조)는 공의 처향인 충남 대전으로 이거하셨고, 참의공 할아버지(11세조)와 첨정공 할아버지(11세조)는 계파를 따라 환향하여 사천 땅에서 근거를 넓혔으며, 계파 중 일부는 하동 진교, 전남 순천으로 이주하여 후손들의 번영을 도모하였습니다.

世	22	23	24	25	26	27	28	29
행렬자 行列字	중기 (中基)	중호 (永濤)	영영 (永永)	진식 (震植)	남준 (南準)	규규 (圭奎)	태용 (兌鎔)	
30	31	32	33	34	35	36	37	38
연수 (淵洙)	산영 (申榮)	화렬 (華烈)	재재 (在載)	석현 (錫鉉)	임호 (任浩)	인권 (寅權)	경병 (景炳)	준곤 (準坤)
39	40	41	42	43	44	45	46	
박옥 (鎋玉)	동주 (東柱)	형주 (炯柱)	균성 (均城)	사록 (鎔錄)	문옥 (汶沃)	계도 (桂桃)		

● 신묘보서(辛卯譜序) -1771년 교도선생 11세손 휘 사우(時遇)조 기록

우리 이씨는 계통이 사천에서 나왔으나 병화를 여러번 겪은 후에 특히 보첩이 유실 되었다. 가첩에도 또한 상고할 수 없으므로 어느 조상이 시초되고 어느 대에 분파됨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처사 정공이 세계를 구암선생 행장에 기록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 즉 고조이상 12대는 계승하여 사마벼슬을 지냈다 하였고, 남명 조식선생이 지은 묘비문에 의하면 이씨의 선대는 혁혁한 문장과 이름높은 선비라고 고려말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미수 허목선생이 지은 묘비에 의하면 교도선생 이상 12대는 대대로 진사되어 그 당시의 명문이 되었다 라 하였다.

이 세분의 넓은 식견을 보아 그 당시에는 반드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200여년이 지나며 그 전함을 얻지 못함을 한탄한다. 이제 사천을 관향으로 하는 이씨는 각 처에 살고 있

나 여러 집은 참고할 만한 자료를 기록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우리 교도 선생 형제과는 후손이 드물고 다행이 근대세대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한심한 일은 그 직파의 유래만 기록하고 다시 방조 각 파의 몇대에 어떤 누구의 사적 관직과 자손된 사람의 몇 대 몇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도선생이상 5대로 말하자면 반드시 지파와 외손이 있을 것이나 도무지 들어 알 수 없고 또한 교도선생의 아들이 4분 있었는데 큰아들은 흥범이요 둘째는 구주요 세째는 이륜이요 네째는 유서인데 구암집 세계 중에 기록된 것은 단지 진사이신 형제 3분의 성함만 기록하고 장파 흥범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과연 미처 상고하지 못하여 그러함인가. 혹시 그 후손이 없어 그러하였는가를 알 수 없다. (이하 생략)

● 종헌(宗憲)

우리 사천(동성)이씨는 조상이 남기신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받아 지켜 나가야할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그 실천에 힘쓴다.

1. 우리 종인들은 조상의 숭고한 정신과 명예를 존중하고 계통간 예절을 지키며 종족목(宗族敦睦)에 힘쓴다.
1. 우리 종인들은 충과 효를 몸소 실천하여 후손들의 본보기가 된다.
1. 우리 종인들은 종족의 번영을 위하여 각자의 능력개발과 후손의 육성에 힘을 쏟는다.
1. 모든 종파는 종재(宗財)를 따로 가질 수 없으며 파벌의 조성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1. 종의 총합적 실천을 위하여 대종회를 구성하고 모든 종인은 대종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준수실천할 의무를 진다.
1. 각지에 산거하는 종인들은 그 지역에서 화수회를 조직하여 종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대종회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1. 종인이 되는 요건은 호적·대동보·대종회의 결정에 의한다.

1995년 5월 16일 대종회에서 결의함
편집자 주 - 대동보 1권에서

● 성씨의 발생사 (편집자주 - 출처 : http://mksb.com.net/mok10.htm)

한국의 성씨는 중국의 한자문화가 유입한 후인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나라는 중국이며, 처음에는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산, 강 등을 인용하여 성으로 삼았다. 신농씨(神農氏)의 어머니가 강수(姜水)에 있었으므로 강(姜)씨라고 하고 황제(黃帝)의 어머니가 희수(姬水)에 있었으므로 성을 희(姬)씨로 하였으며 순(舜)의 어머니가 요허(姚虛)에 있었으므로 성을 요(姚)씨로 한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대별 특색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구려 시대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건국 시조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고 하였으며, 주몽은 충신들에게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를 사성하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또 유리왕이 사성하였다는 위,우씨 또는 대무신왕이 사성하였다는 낙, 부정, 대실씨 등은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대무신 왕때의 을두지, 송옥구를 비롯하여 이후 재상급만도 목도루, 고복장, 명림답부, 을파소, 고우루, 명림어수, 음우, 창조리, 을지문덕, 연개소문 등등의 이름이 있으며, 또한 왕비나 왕모의 성으로 예, 송, 우, 연, 주씨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한서에 나타나 있는 인명의 기록을 보면, 주몽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나, 장수왕 때에 장수왕 이름을 고연(高璉)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을 고(高)씨로 기록하였으며, 장수왕이 사신으로 보낸 고익, 마루, 손참구, 동마 등의 이름에도 모두 성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씨 중에서 고구려에 연원을 두는 성씨는 극히 드물다.

고씨는 고주몽의 후손이 강원도 횡성 지방에 약간 산재한다고 전해지고 그 외의 고씨는 모두 탐라 고씨계이다. 오직 강씨가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강이식을 시조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백제에서는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扶餘)씨라고 하였으나 중국의 후한서, 삼국지, 진서에는 왕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며, 진서, 송서 등의 기록에는 근초고왕(13대)부터 위덕왕(27대)까지는 여(餘)씨로 표시하다가 무왕(29대)부터 부여(扶餘)씨로 기록하였다.

또한 온조를 따라 남하하여 백제 건국에 공을 세우고 십제공신이 되었다는 전설과 마여를 원조로 하는 전씨와 따씨가 있다. 개루왕 때 인물인 도미를 선계로 하는 성주도씨가 있으며, 백제가 망하자 당나라로 망

명하여 당 고종으로부터 새로 사성 받고 웅진도독이 되어 귀국했다는 부여용을 시조로 하는 부여서씨가 있다. 이외에 백제 8대 성과 같은 성으로 진씨, 연씨, 국씨가 현재도 있기는 하나 그 연원이 분명치 않다.

세 번째 신라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의 기원은 아무래도 신라에서 연원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박, 석, 김 3성과 이, 최, 손, 정, 배, 설의 6촌성에서 연원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 일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박(朴), 석(昔), 김(金) 3성의 전설이 전해 오며, 유리왕 9년(32)에 육부(六部)의 총장에 게 각각 이(李), 정(鄭), 손(孫), 최(崔), 배(裨), 설(薛)씨의 성을 사성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7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직 성씨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성씨가 쓰이기 전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의 출신지이다. 다만 왕실에서는 24대 진흥왕 때부터 김씨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양서], [신라전]에는 '신라왕 모태가 처음 사신을 보내왔다'고 나와 있는데, 모태란 23대 법흥왕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북제서]에는 법흥왕 다음 임금인 진흥왕을 김진흥, 진평왕을 김진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왕실의 김씨를 제외한 그 밖의 6촌성들은 그보다 훨씬 뒤인 중기에야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다만 가락국의 시조로 알려진 수로왕의 12대손인 김유신은 제외이다. 김유신은 누이가 태종무열왕의 비가 되면 서부터 김유신이 처음으로 김씨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는 설도 있다.

신라 시대의 성씨로는 3성과 6촌성 외에 9세기 초 당나라에 갔다 온 후 청해진 대사가 된 장보고가 처음 장씨로 등장하였고,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러서야 많은 새 성(姓)의 등장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삼국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추정해 보면 고구려는 장수왕시대(413~490)부터, 고(高), 을(乙), 예(芮), 송(松), 목(穆), 간, 주(舟), 마(馬), 손(孫), 동(董), 채,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등이 사용되었으며, 백제는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여, 사, 연, 협, 해, 진, 국, 목의 8족과 왕, 장, 사마, 수미, 고이, 흑치 등이 사용되었고,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성을 쓴 것으로 기록에서 추정하며, 박, 석, 김 3성과 이, 최, 정, 손, 배, 설의 육부의 6성과 장, 비 등이 있고, 왕실의 성인 고(高),여(餘),김(金)을 쓴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삼국시대에도 성을 사용한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 않았다.

네 번째, 고려시대에서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을 하사하면서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을 쓰게 되었으나, 고려 문종9년(1055)에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을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민중이 성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많아졌다.

다섯 번째, 조선시대 이후에서 보면 조선 초기 성은 양민에게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호적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 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씨의 종류 수가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193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가 많아졌다.

우리나라 성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486년(성종)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 영조(21대)에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1908년(고종)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250성, 1960년 국세조사에는 258성,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성이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하에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한 1939년의 창씨개명은 1945년 해방과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에 따라 우리나라 성씨 역사의 가장 큰 수난기였다. 이후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구암龜巖 선조의 일을 찾아서



법학박사 **李 善 永**

부산화수회 회장(참지공파 24세)

14년 전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신문 중의 하나인 새마을운동 신문 「鄉土인물 기행, 경주편」(1998년 9월 17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오늘, 서라벌이 되살아나고 있다. 「새천년의 미소」 「98경주세계문화EXPO」를 관람 온 구경객 들과 들뜬 거리가 온통 잔치물결로 술렁인다.” “천년의 도읍지 경주는 오늘 다시 천년의 역사를 더하며 찬란했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경주를 되살리는데 전환점을 마련했던 인물은 조선시대 학자 구암 이정(李楨; 1512~1571) 선생과 누구보다 박정희 대통령이였다.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며 풍속이 문란하여 역대 여러 임금의 왕릉이 허물어진 채 곳곳이 논밭으로 변해 있었다. 왕릉의 이수(螭首; 비석의 머리에 새긴 뿔 없는 용의 모양)와 귀부(龜趺; 돌로 만든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주춧돌로 쓰고 있는 지라...” 이에 크게 분개한 구암 선생은 즉시 능묘를 봉수하였으며 무열왕능과 김유신 장군의 묘에 제사를 받들었다.” 하고, “그 후 경주 시찰을 온 박정희 대통령이 왕릉을 타고 오르는 호박넝쿨과 인분을 목

격하면서부터 다시 경주는 본격적으로 보존·개발되기에 이른다.”라고 이 신문은 소개하고 있다. 경주 부윤(府尹)으로서, 한 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할지 모르나 수백년동안 황폐화된 신라 왕릉과 학자·장군묘를 복원하고 서약서원(西岳書院)을 지어 제사를 모시게 하는 한편 학문을 하게하여 흩어진 고을의 민심을 안정시킨 일은 그 자리를 거친 많은 부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어서 참으로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전 사천(동성)이씨 문중에서는 「수서시첩」(壽瑞詩帖)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 수서시첩이 무슨 책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첩은 어느 문중에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서기 1460년경 조선 세조때 문경 강맹경, 퇴계 이황을 비롯하여 그 시대 50여 명의 덕망 있는 대 학자들과 고관대작들



▲ 사천(동성)이씨구암(龜巖)선조 영정 6세

이 교도(敎導)선조께서 90수를 누리고 70여 년 동안 동갑 부부가 해로화합하고, 그 아들 이륜(彝倫)과 손자 맹주(孟柱) 형제 등 후손의 효성이 지극하여 이를 찬송하는 글을 모은 책이다. 장수(長壽)와 효도를 찬송하는 글을 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할 지 모르나 5백여 년 전 왕조시대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 영의정과 50여 명의 대 학자들이 글로서 이를 찬송하였다 함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배경에는 역시 구암(龜巖)선조의 훌륭한 학문과 선정(善政)과 덕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첩에서 강 문경(姜 文景)은 수서시 초에 “시(詩) 한 수를 지어서 향중(鄕中) 경노(敬老)의 근본이 되도록 함이라” 였고, 이 농암(李 蠶巖)은 서문에서 “내가 강 문경 상공에게 이 교도공의 시문(詩文)과 교도공의 자손들이 대대로 독실한 효자라고 찬미하며 효도하는 집안이라 칭찬하는 것을 들었다”하고, “집안 대대로 전해 오는 효도를 닦아 한 고을이 선량하고 집집마다 이씨의 효도의 가문을 본받게 함이 틀림없을 것이다. 사군(使君)은 힘쓸지어다. 내가 이미 시집(詩集) 중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사군이 비천하다 하지 않고 찾아준 깊은 뜻에 감동하여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상공(相公)의 시문(詩韻)에 차운(次韻)하고 아울러 서문을 쓴다”라고 하였다.

또 이 퇴계(李 退溪)는 시첩 후발문에서 “내가 이씨 한 가문의 일을 보니, 실로 다섯 가지의 어려운 것이 있었다. 첫째는 인생의 수명이 90세에 이른 것이고, 둘째는 부부가 동갑으로 같이 장수를 누린 것이고, 셋째는 동향(同鄕)의 상공이 출세하여 부모님을 찾아뵙는 여가에 노인을 존경하는 뜻을 미루어 친히 한 가영(歌詠)을 얻은 것이고, 넷째는 자

손이 모두 효행이 있어 임금의 은혜를 입기까지 한 것이고, 다섯째는 선(善)을 쌓아 현손(玄孫)에 이르러서 명망 높은 집안의 경사를 크게 받은 것이다. 이는 다 하늘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는 이 시편을 반복해 읽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라고 하였다.

선조의 일을 찾아서 이를 받들고 본받는 일은 후손들의 몫이다. 사천문화원에서 고(故)이 중철 종인(24세)의 편저로 1994년 초판, 2002년 속판을 낸 구암연보(龜巖年譜)를 읽어보노라면 그동안 구암 선조의 일을 너무도 모르고 살았다 싶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구암 선조께서 선조(宣祖)임금이 내린 흥문관 부제학의 명을 사양하는 상소문에는 당시 60세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충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하께서 이러한 아침이나 잘하는 소인배들의 곤혹한 꾀임에 빠져 들면 어지신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옵소서. 이제 백성을 이끌어 교양할 방도가 없고 미풍양속은 퇴폐해져 순수하지 못한데다 백성들의 원성은 드높고 군졸마저 병들었으니 참혹하기로 말하면 가히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터집니다.”하고, 말미에 “...선대의 유학자가 말하여 이르기를 경(敬) 하나만 넉넉하면 천(千)의 사악(邪惡)을 대적(對敵)할 수가 있고 성(誠) 하나만 넉넉하면 만(萬)가지 거짓됨도 풀 수 있다고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옵서는 마음 깊이 새기시옵소서.”

구암 선조의 부음(訃音)을 받고 내린 임금의 제문(祭文)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동도(東都)를 다스렸고 능원(陵園)을 봉수하였으니 이 또한 어진이의 일이며 호계(湖界)에 있는 고을이라 세인이

이르기를 다스리기 어렵다 하였으나 교활한 것은 물리치고 곤궁한 것은 구제하였으니 사랑과 위업을 베풀었다. 서원을 이룩하여 어진 이를 본받게 함으로서 명성을 세웠으며, 많은 책을 발간하여 후생(後生)을 가르치고 깨우쳤다.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백성들이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벼슬을 그만 두었다. 향리에 돌아가서는 여독(餘毒)에 걸리더니 얼마 후에 복(服)을 맞았고, 부제학에 임명하여 서로 의논하여 임금을 도우라 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니 민망하게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다. 부제학을 사양하여 올린 상소(上疏)는 모두가 진심에서 나온 정성스런 글이었도다. 어찌 오늘에 와서 영영 보지 못할 줄을 알았으리오. 생각하건대 경(卿)은 늦게까지도 학문을 즐기었으며 집에 있기를 여러 해인데 오로지 그 뜻이 그만두는데 있었던가.

학문을 함에는 떳떳하였고 다스림에 이르러서는 밝았으며 반드시 신문(神門)에 회의함이 있었느니라

학문에는 통달했던바 더욱 묘하였는데

흥금을 터놓고 하는 말을 못 듣게 되었으니

이에 이르러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받들며

부탁하건대 나의 비통함이여

이와 같이 임금이 내린 제문(祭文)에는 구암 선조께서 경주 부윤으로 있을 때 쌓은 업적을 포함하여 평소의 깊은 학문과 충효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구암 선조께서는 효성이 지극하고, 정확(正學)으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거부했으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훌륭한 분이셨다. 구암 선조의 일은 어느 한 문중이나 지역에 국한하여 새길 일이 아니고 이를 온 나라에 보급하여 받들어야 할 일이다.

대중회 임원명단

• 2012. 02. 07. 현재
• 임기 : 2011. 4. 17. ~ 2013. 4. .

연번	직책	성명	파조	대수	연번	직책	성명	파조	대수	연번	직책	성명	파조	대수	연번	직책	성명	파조	대수
1	회장	이종우	1참지공	24	18	부회장	이종현	4첨정공	24	35	이사	이정현	2진사공	27	52	이사	이형부	6백인제	25
2	명예회장	이봉록	4첨정공	22	19	부회장	이우식	5우소제	25	36	이사	이흥규	2진사공	28	53	이사	이영기	6백인제	27
3	고문	이병대	2진사공	25	20	부회장	이재봉	5우소제	28	37	이사	이주호	3참의공	24	54	이사	이성대	6백인제	28
4	고문	이기태	4첨정공	22	21	부회장	이형환	6백인제	25	38	이사	이철호	3참의공	24	55	이사	이권식	6백인제	29
5	고문	이원기	4첨정공	23	22	부회장	이영일	6백인제	27	39	이사	이영택	3참의공	25	56	이사	이기호	7성군진사	26
6	고문	이봉기	7성군진사	25	23	부회장	이정섭	7성군진사	26	40	이사	이영학	3참의공	25	57	이사	이영섭	7성군진사	26
7	고문	이영규	7성군진사	25	24	부회장	이영근	8선무랑	24	41	이사	이현명	3참의공	26	58	이사	이용수	7성군진사	26
8	고문	이종점	7성군진사	25	25	부회장	이차용	9생원공	25	42	이사	이만국	4첨정공	23	59	이사	이승열	7성군진사	27
9	고문	이준현	8선무랑	22	26	부회장	이무식	9생원공	26	43	이사	이민도	4첨정공	23	60	이사	이정오	7성군진사	27
10	고문	이팔성	8선무랑	23	27	이사	이기명	1참지공	24	44	이사	이영갑	5우소제	25	61	이사	이동선	8선무랑	22
11	감사	이영춘	5우소제	25	28	이사	이종수	1참지공	24	45	이사	이영국	5우소제	25	62	이사	이정배	8선무랑	23
12	감사	이순호	6백인제	25	29	이사	이종두	1참지공	25	46	이사	이순호	5우소제	27	63	이사	이경호	8선무랑	24
13	부회장	이선영	1참지공	24	30	이사	이호종	1참지공	25	47	이사	이창문	5우소제	27	64	이사	이삼도	9생원공	25
14	부회장	이영철	1참지공	25	31	이사	이효종	1참지공	25	48	이사	이봉호	5우소제		65	이사	이상석	9생원공	25
15	부회장	이병무	1참지공	26	32	이사	이정석	1참지공	27	49	이사	이경식	6백인제	25	66	이사	이태복	9생원공	26
16	부회장	이남민	2진사공	27	33	이사	이형창	2진사공	26	50	이사	이영춘	6백인제	25	67	이사	이재수	9생원공	27
17	부회장	이영기	3참의공	25	34	이사	이남도	2진사공	27	51	이사	이용수	6백인제	25	68	이사	이태일	9생원공	33

이정 선생이 본 경주(1560년)와 박정희 대통령이 본 경주(1970년)



〈경주개발 고금〉이라는 책을 경북지사와 국제청장을 역임하신 김수학 회장(1927.9.1~2011.3.16)께서 쓰신 내용 중에 구암 선생에 대한 기록을 보고 우리 씨족의 긍지로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기에 책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성균진사공파 26세 이영섭

몇 년 전에 사천문화원에서 발간한 〈구암연보(龜巖年譜)〉를 읽으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경주개발 당시 박대통령께서 말한 내용이 400여년전 구암 선생이 본 경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암(龜巖) 이정(李楨, 1512~1571) 선생은 퇴계 선생과 사우(師友)이면서 문제(門弟)되기를 자청한 선현으로 중종, 인종, 명종, 선조에 이르기까지 네 왕을 섬긴 학자다. 조정에 들어서는 백관의 모범이 되었으며, 외직에 나가서는 선덕(善德)을 베푸는 목민관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구암연보〉에는 선생의 행장이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

1550년 9월 경주 부윤(府尹)에 제수된 이래 경주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백성들은 흠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며 풍속이 문란하여 역대 여러 임금의 왕령이 허물어진 채 곳곳이 논밭으로 변해 있었다. 왕령의 이두(吏頭)와 귀부(龜夫)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주춧돌로 쓰고 있는지라, 선생이 이를 크게 분개하여 여러 규정을 새로 만들고 즉시 능묘를 봉수(封守)했으며, 다시 무열왕릉과 김유신장군의 묘에 제사를 받들었다.

신라 삼현(三賢)의 봉사원(奉祀院)이 없음을 탄식하여 서원 창건을 도모하고 먼저 정사(精舍)를 세우는 일을 서둘렀다. 선생께서 창건한 것이 1561년 명종 신유년에 창건한 서악서원(西岳書院)이다. 이 서원을 서악정사라 이름하고 신라 개국공(開國公) 김유신(金庾信),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등 신라 삼현을 향사하였다.

1571년(선조4년, 辛未) 선생께서 세상을 뜨자, 선조가 선생의 부음을 듣고 전한(典翰) 오건(吳健)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고 예조정랑 정언신에게 명하여 구암 땅에 가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 제문 중에 “동도(東都:경주)를 다스리고 능원(陵園)을 봉수하였으니, 이 또한 어진이의 일이다. 또한 서원(書院)을 이룩하여 어진이를 본받게 함으로써 명

성을 세웠으며(경주에 서악서원을 창건하여 신라 삼현을 봉사하고, 순천에 옥천서원을 창건하여 김광필을 봉향하였음), 많은 책을 발간하여 후생을 가르치고 깨우쳤도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경주에서의 선생의 생활과 치적을 엿볼 수 있다.

선생이 정사(精舍)를 이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사민간 의논이 분분한 가운데 공역을 끝내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읊은 다음 두 수의 시는 정사(精舍)를 이룬 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순임금 베푼 말 전해진 후로
虞家數語傳後
儒學은 萬古에 일월인양 밝았네
萬古欺文白日明
한결같이 曾子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一唯參乎心默契
다시 어진 顏子의 도를 거듭 받든다
再賢回也道重享
東洛에 光風이 조용히 하는 뜻으로
光風東洛從容意
서쪽 숲에 가을달 스며드는 정이로다
秋月西林感慨情
벗들 모여 학문을 닦을 곳 있으니
會友琢磨今有地
정녕 이 서악정사 저버리지 마오
丁零毋負此堂名

버들가지 푸르고 꽃 붉어 봄빛 짙는데
柳綠花紅務色段
배움 즐긴 젊은이를 물어서 따르고
訪隨宜學少年群
천년도읍지에 세속은 옛 아니건만
千年大地俗非古
나 하나 개운치 못한 마음 이제 따사로우랴
一介迂儒心似薰
날것 먹는 기러기 연못 속에 어이 놀까
素食機警中澤鴈
바라보니 하늘 밖에 구름이 날아가고
岸市空望出山雲
선도골 한 복판에 새집 이루었으니
仙挑洞裏新開宇

좋은 경치 찾은 김에 훌훌 때를 씻을거나.
探勝歸來滌垢紛
(西岳精舍 2首, 1562년 51세)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 세운 사학(私學)의 명칭이다. 동시에 선현을 봉사(奉祀)하는 사묘(祀廟)를 가지고 있다.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존현(尊賢)과 강학(講學)이었다. 그런데 점차 교육기관으로서의 일차적 기능이 약해지고 봉사 위주의 성향이 현저해진 상태에서 가문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국내 박사 1호이며 1946년 고려대 초대 총장을 지내다가 한국전쟁 중 납북된 현상윤 선생이 1949년에 쓴 〈조선유학사〉에서 “유학이 조선 문화에 남긴 발자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인륜도덕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학(理學), 즉 철학사상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는 공(功)될 만한 것, 즉 공헌도 있고, 죄될만한 것, 즉 해독도 있다.” 라고 하였다.

둘째는 이학(理學), 즉 철학사상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는 공(功)될 만한 것, 즉 공헌도 있고, 죄될만한 것, 즉 해독도 있다.” 라고 하였다.

그 공으로는 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시한다는 ‘몸을 닦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군자학’의 면려(勉勵)와 인륜도덕(人倫道德)의 승상, 청렴절의의 존중을 들었고, 죄로는 모화사상, 당쟁, 가족주의의 폐해, 계급사상, 문약(文弱), 산업능력의 저하, 상명주의(尙名主義), 복고사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선유학의 폐해로 조선은 종말을 맞기는 하였지만, 조선 유학은 오늘날까지도 인륜도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사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정사(精舍)를 세우고자 했던 이정 선생의 뜻은 오늘날 문화유산의 보존과 선양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

다. 또한 인륜도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이루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었다. 이러한 이정 선생의 서악서원 창건의 뜻은 곧 경주개발의 정신과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왕릉 언저리의 호박구덩이와 이정(李楨) 경주부윤이 개탄한 왕릉의 이두나 귀부가 주춧돌로 쓰이던 사연과 무엇이 다를까?

이정선생의 심정이나 박대통령의 심정이나 같은 맥락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정 선생께서 경주부윤 시절 경주 관아의 여러 곳에 이를 때마다 남긴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 다음 시를 보면 치민(治民)에 힘쓰는 선생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다.

물가에 앉아 그림자 비쳐보니 부끄럼 많아
臨流照影發慚多
해마다 뜻이 같지 않음은 어찌된 일인가
事事年來敗意何
다만 천년도읍지 원님 벼슬 탐나서
只作鷄林饒太守
문천에서 삼년이나 은어를 먹었는가
蚊川三載食銀沙

(蚊川에서)

이정 부윤은 경주시 남쪽 반월성 앞을 흐르는 맑은 문천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부끄러움은 천년의 고도가 폐허로 변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치민에 대한 의욕이 생각만큼 실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는 허명(虛名)만을 탐하여 경주를 다스리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선생이 창건한 서악서원은 1970년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고, 경주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중수하였다. 매년 춘추에 봉사(奉祀)도 이어지고 있다.



“홍문연도부鴻門宴圖賦” 를 읽고



문학박사 이 은 식
(창녕교육청 교육지원과장)

모양이다. 당시 항우와 유방은 같은 등급이 아니었다. 유방이 항우의 아래였다. 당연히 항우는 유방과 같이 진나라와 전투를 벌이더라도 대표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였고, 전쟁에 이기면 관중에 먼저 입성할 사람도 자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유방이 먼저 입성해 버렸다. 항우는 유방 옆에서 그림자처럼 같이 다니던 범증을 항우에게 유방을 죽이려고 간언하였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본기(史記本紀)의 항우본기(項羽本記)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소위 ‘홍문연(鴻門宴)’의 내용이 있다.

‘유방이 항우보다 먼저 관중으로 들어갔다. 항우는 매우 화가 나 말했다. “내일 병사들을 잘 먹여 패공(유방)의 군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40만이고 유방의 병사는 10만이였다. 범증이 항우에게 말하기를, “유방은 미녀와 재물을 좋아했는데 관중으로 들어가서는 미인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함곡관(函谷關) 합니다. 이는 자신이 더 큰 욕심이 있어 그러합니다. 서둘러 죽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방을 흉문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여는 채 하면서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항우의 작은 아버지 항백이었다. 항백은 유방의 책사 장량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

는데 장량이 항백을 도와 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백을 장량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다.

항우의 부름에 유방은 생명의 위협을 알면서 올 수밖에 없었다. 장량이 계획을 미리 세우고 유방과 같이 항우가 있는 홍문으로 왔다. 100여명의 기병과 같이 왔다. 유방은 장량의 계획대로 항우에게 말했다. “신은 장군과 함께 죽을 힘으로 진나라를 공격하였는데 장군께서는 하복에서 싸우시고 신은 하남에서 싸우다 뜻밖에도 제가 먼저 함곡관에 들어가 진나라를 무찔렀고 다시 이곳에서 장군을 뵈옵게 되었습니다. 항우는 유방과 술을 마시자고 하며 술을 마셨다. 그때 범증이 항장에게 칼춤을 추는 체 하다가 유방을 죽이려고 하자 항장이 칼춤을 추었다. 이를 본 장량이 밖으로 나가 자기편 번쾌에게 위급함을 전하자, 번쾌는 칼을 들고 급히 들어와 항우를 노려보았다. 번쾌의 머리카락은 위로 치솟고 눈꼬리는 찢어져 있었다. 항우가 칼을 잡으며 물었다. “객은 누구인가?” “패공(유방)의 참승 번쾌라는 자입니다.” 항우는 “장사이다. 그에게 술을 내리겠다.” 그리고는 한 말의 술을 주었다. 번쾌는 인사를 하고 일어나 서서 한 말의 술을 다 마셨다. 그리고 방패를 엮어 놓더니 돼지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칼을 뽑아 썰어 먹었다. 항우가 “더 마실 수 있는가?” 묻자 “신은 죽음 또한 피하지 않았는데 술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지금 패공께서는 먼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들어가셔서 재물에 한 터럭도 감히 가까이 하지 않고 대왕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애써 고생하여 이룬 공이 높는데 상

은 내리지 못할지언정 공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것은 멸망한 진나라를 잇는 것일 뿐이니 대왕께서 취하실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우는 답변이 궁했다.

유방이 화장실에 가면서 번쾌를 불렀다. 장량을 남기고 번쾌와 조용히 홍문을 벗어났다. 남아 있는 장량이 유방이 멀리 벗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항우에게 말하기를, “패공이 술을 이기지 못할 정도에서 하직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가 신 장량에게 흰 옥 한 쌍을 받들어 대왕께 재배하며 바치게 하고 옥으로 만든 큰 술잔 한 쌍은 대장군께 재배하며 바치게 했습니다.” 했다. 항우는 옥을 받았고 대장군 범증은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옥을 부숴버렸다.

이러한 홍문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홍문연도(鴻門宴圖)인 모양이다. 나는 이 그림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아니, 홍문연이 하도 유명한 일이라 어쩌면 보았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초한지

의 유명한 내용인데 말이다. 어쨌든 이 그림에 대하여 부(賦)라는 문학형식으로 글을 지었던 구암선생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글의 내용을 보면, 거의 역사의 사실에 감성을 넣어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우의 말로 애도하는 글로 나라의 흥망성쇠 가능하였다.

비록 조선시대 당시에는 중국의 역사를 암송하다시피 하는 교육이 성행하였고 한문이 필수적인 문자교육이라지만 12세의 당찬 필력은 실로 대단하다. 또한 초한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필독서로 한 세대에게 아주 정겨운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었다. 그 속에 나오는 인물을 모방하려고 호기롭게 술을 마시고 행동도 엇비슷하게 취하였다. 두주일배(斗酒一杯)는 호탕함 그 자체였다. 체질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남자들에게는 지옥형벌이었다. 술을 호기롭게 마시지 못하면 재재해 보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술자리에서 죄인처럼 소인배처럼 우물쭈물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초등학교 시절 대작대기를 말처럼 사타구니에 끼고 달리기도 하고 나무칼을 차고 대나무로 쪼갠 활에다 화살을 만들어 허공에 날리던 일들이 새삼스럽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동창회모임이 지금도 제일 즐겁다.



▲홍문연도(鴻門宴圖) 일부

성 임동현 동쪽에 홍구(鴻溝)라는 곳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 죽이려고 벌인 잔치를 의미한다. 진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관중(關中)에 가장 먼저 들어가 다스리는 사람을 그곳의 입구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자, 패에서 군사를 일으킨 유방이 함께 진나라를 치기로 했던 항우를 제치고 먼저 관중으로 들어가 진나라를 항복시켰다. 관중(關中)은 관외(關外)와 구분되는데, 함곡관을 기준으로 하면 함곡관 안이다. 함양이 수도로서 관중지역도 수도에 포함시켰던



▲함곡관(函谷關)

鴻門宴圖賦 (홍문연도부)
- 구암선생이 13세에, 장안과 하북에서 “홍문연도부”
鴻門宴圖賦 漢高祖五年冬十月沛公先破秦入咸陽還軍霸上以待將軍沛公先破秦入咸陽還軍霸上以待將軍... (transcription of the text in the image)

사천(동성)이씨 부산청년회의 사천 와룡산 산행 겸 백천사 답사기

글 · 사진 : 총무 이 현 식(백인제공파 26세)



2012년 3월 11일 사천회 정기 산행을 시작합니다. 아침 8시45분 부산 동래지하철역 3번 출구 앞 관광버스 도착,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조마조마 마음으로 예약하신 분 한 분 한분마다 다시 전화를 하면서 기다려 본다.



오전 11시 사천 백천사 주차장에 도착. 인원 파악 후 단체촬영을 하면서 무탈한 산행과 즐거운 추억을 다짐해 본다.



오후 1시 헬기장 근처에 도착 점심시간. 때가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즐겁게 개인이 지참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반주로 정상주 한 잔씩을 나누며 종친 모두의 우애를 더욱 다진다.



새섬봉에서 산 사나이 이학식 씨 형제가 한 컷. 우리 모임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들 형제가 함께 산행하고 함께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형제간 우애를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듯.



산행을 마치고 하산주를 겸한 저녁식사(이선영 화수회 회장님 찬조) 사천청년회 이권식 회장께서 운영한 청화공식당(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852-6500)을 찾았다. 식사와 반주 중에 금일 산행에 대한 사천회 회장님의 인사말씀.



드디어 출발. 멀리서 오신 분은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제 마신 술 아침 해장술로 속을 푸는 분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벌써 와룡산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다.(산에 오르지도 않을 용성씨는 안주만 축내고...)



오후 12시 40분 민재봉 정상에 도착. 길은 짙어 걷기가 힘들고 또한 세찬 바람을 안고 힘들게 정상에 도착. 과거에는 민재봉이 제1봉이었으나 이제는 새섬봉이 제1봉이 되고 민재봉은 제2봉이 되었다고 국토지원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다. 민재봉이 제1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달그림이 되면 슬퍼서 산이 운다는 전설도 있다.



새섬봉 정상에서 이영갑 회장 부녀 사진 한컷. 산행 출발시는 정현이가 과연 종주를 할 수 있을까? 내심 많은 걱정을 하면서 입산을 했지만 괜한 걱정. 베이스캠프조는 정현이 보고 많이 느껴야 할 듯...



정상의 기쁨도 잠시. 하산 길에 접어들었다. 하산 길에는 누가 공을 들어 만들었는지 돌탑도 많고, 길이 가파르고, 자갈이 많아 조심조심, 도착지를 향해 한발 한발 힘차게 앞으로 내딛는다.



즐거운 산행 뒤풀이. 무엇이 그리도 즐거우신지 하나같이 얼굴에 함박웃음이. 이렇게 아침부터 웃고 떠들고 즐거웠던 우리의 산행은 저무는 하루 해와 더불어 마무리 되고 있었다.

공자님의 고향 곡부를 다녀와서

부산청년회장 변호사(우소제공파 25세) 이 영 갑



지난해(2011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靑島)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의 청도율사협회(靑島律師協會: 중국에서는 변호사를 律師라고 합니다)와의 정기교류회에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제2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날 공식행사를 마치고 둘째 날부터는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곡부(曲阜)와 태산(泰山) 및 청도 일원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교류회에는 원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가족동반이 가능하여 저도 제 처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행 51명은 13일 아침 9시에 김해국제공항에 모여 11시 10분발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2시간만인 중국시간으로 12시 5분(중국과 우리나라는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에 청도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은 후에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17명은 따로 청도율사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만찬에 참석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청도 시내관광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처는 관광팀에 합류하여 시내관광을 한 후 밤에 숙소인 호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첫날 일정을 보내고 다음날인 10월 14일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공자님의 고향인 곡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청도에서 곡부까지 버스로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곡부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잘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야말로 도로가 딱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내려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다보니 곡부에 도착하니 어느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공자님의 무덤이 있는 공림(孔林)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공림은 지성림(至聖林)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인



공 원림이라고 합니다. 공림에는 공자님과 그 후손들의 무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자님의 무덤 앞쪽에는 손자인 공급(孔伋, 호는 子思, 중용의 저자로 알려져 있음)의 무덤도 있고 옆쪽에는 아들인 공리(孔鯉)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잘 정비되어 있고 주위의 나무들과 어우러져 상당히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공자님의 무덤 앞에는 커다란 묘비가 있었는데 그 묘비에는 대성지

성문선왕묘(大成至聖文宣王墓, 당나라 현종이 공자님에게 문선왕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묘비를 앞에서 보면 둘러쳐진 호석에 가로막혀 왕(王)자가 방패 간(干)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이 공자님묘를 참배할 때 왕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림과 공묘에 있는 비석 중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아니 꼭 하나만 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중국의 문화혁명시기에 홍위군에 의하여 공묘와 공림이 파괴되었는데 그 당시 비석도 모두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비석이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그 비석을 세운 사람의 이름에 공산당(共産黨)이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당(黨)'자(字)가 들어 있어서 파괴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공림관광을 마치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저녁식사를 마치고는 공자님의 일대기를 일종의 연극으로 꾸민 공자무극쇼를 관람하고는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5일은 원래 아침에 태산(泰山)에 올랐다가 오후에는 임치(臨淄)에 있는 강태공사당을 들르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제 공묘(孔廟)를 구경하지 못해서 일정을 바꿔 아침에 공묘에 들렀다가 태산으로 가고 강태공사당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아침식사를 마



치자마자 공묘로 향했습니다. 공묘는 공자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본전인 대성전(大成殿)으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패방(牌坊)과 5개의 문(門)을 지나야 합니다. 패방(牌坊)이란 궁전이나 무덤 또는 절의 전면에 세우는 문짝이 없는 대문 모양의 건축물로서 중국의 독자적인 건축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살문이나 일주문(一柱門), 일본의 도리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패방은 금성옥진방(金聲玉振坊)입니다. 이 문에는 금성옥진(金聲玉振)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전통음악인 팔음(八音)을 연주할 때 종(鐘)을 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경(磬)을 치는 데서 유래하여 사물의 이치를 집대성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의 완성된 인격을 기리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방에는 영성문(嚮星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성(嚮星)은 천상에 있는 별로 고대 제왕을 제사지낼 때 이 별에 대해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공자님도 고대 제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패방에는 태화원기(太和元氣)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공자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태평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다. 마지막 패방에는 지성묘(至聖廟)라고 적혀있는데, 공자님이 최고의 성인(聖人)이고 그분을 모셔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5개의 문이 차례로 나타나는데 성시문(聖時門), 홍도문(弘道門), 대중문(大中門), 동문문(同文門), 대성문(大成門)이 그것입니다. 동문문과 대성문 사이에 규문각(奎文閣)이 있는데 일종의 장서각(藏書閣)입니다. 대성문을 들어서면 비로소 본전인 대성전(大成殿) 구간입니다. 그런데 대성전 바로 앞에 또다른 건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행단(杏壇)입니다. 행단(杏壇)이란 공자님이 은행(銀杏)나무 단 위에서 학문을 강의하였다는 옛일에서 나온 말로 공자님이 제자를 가르치던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성전(大成殿)은 공자의 위패와 소상(塑像)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여 웅만한 궁전만 합



니다. 대성전의 기와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기둥에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금색 기와와 용무늬는 황제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공자님은 황제를 능가하는 성인이기 때문에 황제와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지붕의 윗층에는 대성전(大成殿)이라는 편액이 있고, 아래층에는 만세사표(萬世師表)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대성전 내부에는 금빛찬란한 단장을 짓고 공자님의 위패와 소상을 모셨는데 위패에는 지성선사공자신위(至聖先師孔子神位)라고 적혀있고, 소상

은 면류관을 쓰고 홀을 잡은 형태로 제왕의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자님을 모신 좌우에도 또다른 단장과 위패, 소상이 있는데 이는 顏淵과 孟子 등 공자님의 제자들의 위패와 소상이라 합니다.

타이산 일정이 뒤바뀐 관계로 다음 태산 일정이 바빠서 공자님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공부(孔府)에는 들르지 못하고 급히 버스에 올라 태산으로 향했습니다. 태산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가게 되었는데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는 큰 버스가 갈 수 없어 자그마한 버스로 갈아타고 갔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올라가니 마치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남천문(南天門)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남천문 앞에서 출발하여 옥황봉 정상까지 다녀오기로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남천문 앞에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나 천가(天街)라는 상업거리를 지나 계단과 돌로 포장된 길을 걷다보니 어느덧 태산의 여신인 벽하원군(碧霞元君)을 모셔두었다는 벽하사(碧霞祠)를 지나 태산의 정상 옥황봉(玉皇峰)에 다다랐습니다. 태산의 높이는 해발 1,545미터여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만 평야에 우뚝 솟은 산이다 보니 상당히

높게 느껴졌고, 특히나 그 주위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다 보니 옛날부터 동약으로 숭배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즉위하면 이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성시되는 산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하산길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하산하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을 샀는데, 그 줄이 줄어들 생각을 안했습니다. 거기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 하산하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산하고 들어보니 바람이 많이 불어 우리가 하산한 직후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다가는 하산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산하다보니 점심시간은 지나간 지 이미 한참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약한 식당의 점심을 취소하고(우리 일행은 배가공자 그림 고과 늦은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에서 직원들이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한 직원은 퇴근했고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먹지 않던 KFC 후라이드치킨으로 점심을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도로 다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다음날은 청도에 있는 노산에 올랐다가 점심식사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동양 최대의 성인인 공자님의 고향에 들러 공자님의 자취를 더듬어본 이번 여행은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다만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자님에 대하여 잘 아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종일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곡부에 들러 공자님의 자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도다리를 보면서...

선무랑공파 24세 이 경 호

눈 속에 그려둔 옛 모습 이제는 붉은색 철 구조물로만 남아있다

수많은 사연을 품에 안고서 추억의 영도다리는 사라져 간다

이전에 놓여 있던 돌 하나 다시금 그 자리 놓는다 하여 그 모습 옛 영도다리가 될 수 없기에

다리가 사라지면 옛 추억이 사라지고 가슴 아픈 옛 사연도 사라지려나...

한 맺힌 일제의 시간과 가슴 아픈 6.25의 사연을 품에 안고서 오늘 내 오래된 기억속의 영도다리는 그 모습을 하나 둘 감추고 있다.

